

내년도 국비확보 정치권과 긴밀 공조

전북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새 정부 첫 편성예산인 2018년도 국가예산 본예산 확보와 도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과 안호영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등 도정 수뇌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 기재부 제출기한(5.31)을 앞두고, 2018년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위해 부처에서 예산반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과 도정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18년 국가예산으로 총 989건에 7조 1,590억원을 요구, 부처에서 5조 5천억원 정도 반영(5.25일 기준 잠정 집계, 변동가능성 있음)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추가반영이 필요한 4개 분야를 타킷으로 선정,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지방비 부담요구 사업과 전주역사 정면개선 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부처 타당성 용역결과물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16개이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과소·미반영된 10개 사업이다.

농생명, 토탈관광, 탄소 등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



29일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도내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세계잡머리 새만금 유치 등 도정 현안 해결방안 논의

단계 사업(예타 선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예타 선정), 발효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식품, 종자, 농기계,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육성 사업,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

차대 개발 등 16개 사업이다. 예타 통과 대응사업은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과 2017년 중 예타신청이 계획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또한, 도정현안으로는 대통령 전북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예타 통과 등을 설명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잡머리 새만금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피력했다. /김진성 기자

송 지사, 공약이행 '잘하고 있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6기 공약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민소통분야에서 최우수(SA)등급을 획득했다. 또, 재정관리분야에서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는 2016년 말 기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현직 단계장의 대선후보 및 입각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분야별 평가만 했

다. 도는 주민소통분야에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와 함께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북, 제주와 함께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대비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최초 재정계획 대비 10% 이내 조정)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완료도, 주민소통, 재정내역 중심으로 분석해 나온

결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23개 공약 가운데 ▲완료 11개 ▲이행후계속추진 49개 ▲정상추진 60개 ▲일부추진 3개로 전년과 비교해서 완료는 5개, 이행후계속추진은 14개가 각각 늘었고, 일부추진은 4개가 줄었으며, 공약완료도는 48.78%로 분석됐다.

전북도가 매년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60여명 정도의 공약사업도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소통을 실시함으로써 매니페스토 평가단으로부터

주민소통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원 건립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자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들로 분류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약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매년 도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보다 적극적인 스킨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 시도지사 평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획득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구성·운영 등에서 큰 성과

社 告

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7년 6월 10일 (토) 오후 7시부터
장소: 전주 품바문광장

품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이에 본사는 올해 네번째 품바왕 명인전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전북다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참가자격: 품바에 소질있는 개인·단체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이낙연 총리 인준, 진전 있지만 성과 쉽지 않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진전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약간의 진전도 있고 아직 다 되지 않아서 오늘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6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인사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한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서 저희로서는 상

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야당의 그간 요구가 관철됐다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은 담담하게 참여한다. 바른정당은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조금더 부정적인 것 같다"며 "바른정당은 좀더 긍정적인데 시간을 미루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충분한 논의를 못해서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고, 30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국민의당 등이 인사청문회에 대응적인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뉴시스

서훈 "국정원, 정권비호조직 아냐... 국내 정치와 단절할 것"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

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성했다. /뉴시스

꿈을 꾸는 곳 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